

장애관련 창작연극활동을 통한 중학교 여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변화

옥혜숙*

부산경상대학교 엔터테인먼트모델계열 강사

강영심**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정혜윤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박사과정

《요약》

본 연구는 장애관련 창작연극활동을 통하여 중학교 여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B시에 소재한 일반 여자 중학교에 재학 중인 6명의 학생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비디오촬영, 참여자의 반성적 저널, 연구자의 반성적 저널, 참여자가 완성한 대본을 통하여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3인이 협의하여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여학생은 초기에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표출하는 단계를 시작으로 장애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단계를 거쳐 장애학생에 공감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단계로까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장애학생에 대한 중학교 여학생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 장애관련 창작연극활동이 활용 가능한 교육방법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주제어 : 장애관련 창작연극활동, 장애학생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 제1저자(zjffldk@hanmail.net)

** 교신저자(kangys@pusan.ac.kr)

1. 서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으로 최근 3년 사이에 일반학교 내의 특수학급의 수가 매년 500여개 증가할 정도로(2012 간추린 교육통계, 교육과학기술부)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수가 많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통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수용을 촉진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였다. 하지만 장애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일반또래의 인식은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은 편이다. 일반또래들이 장애를 가진 친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동료로 인정할 수 있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통합장면은 장애학생은 물론 장애를 갖지 않은 학생에게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장애에 대한 일반학생의 부정적인 인식은 과거 장애인에 대한 경험, 장애인의 이질적인 외형적 특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나 일반학생의 개인적 경험이나 특성 외에 사회적 환경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일반학생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니던 때와는 달리 중학생이 되면 장애에 대해 무관심해지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은 중학교 교육환경의 영향이 크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는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적고 또래들과 함께 활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담임교사가 대부분의 시간을 학급학생과 함께 보내면서 학교생활의 전반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적인 범위가 넓어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거나 장애아동을 위한 교수적 수정을 적용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중학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다른 교육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장애아동이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도전적인 환경이 된다. 실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았던 장애아동이 중학교로 진학할 시점이 되면 학부모는 장애자녀를 계속 일반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특수학교로 전환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한다. 다음에 보여주는 장애학생의 부모와 중학교 특수학급교사의 이야기는 중학교 통합교육의 현실을 대변한다.

장애아이를 둔 부모로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환경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초등학교 때는 담임선생님의 관심과 배려의 정도에 따라 학급 친구들이 장애우를 많이 도와주죠. 저학년 때는 반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폐성 장애인 제 아들을 너무 많이 도와줘 가끔 부담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반 아이들이 공부하랴, 학원 다니랴 정신이 없고 게다가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장애우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도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중학교에 입학한 후, 담임선생님이 장애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여도 학생들의 뒷굼은 장난이나 무관심 속에 우리 아이는 위축되고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고

원적반에 머물기를 꺼려하였으며, 자연히 도움실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반 친구들과 더욱 멀어져 가더군요, 초등학교의 통합교육 분위기가 중학교로 연계되지 못하고 아이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지내는 것 같아 아이의 외로움과 고립감이 더 크게 와 닿았습니다,
(2012년 12월 장애학생 어머니의 이야기)

중학교 특수교사로 장애학생의 적응에 대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 장애인식교육을 받은 덕분인지 중학교가 시작되는 3월 초에는 학생들이 장애학생들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는 주 5일제 수업과 성적향상 위주의 교육과정, 수준별 교과교실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따라가느라 너무 힘들어 주변 친구를 배려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지만, 중학교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조례와 종례 시간이고, 교과시간은 진도 나가기에 바빠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학생은 사춘기의 절정인 시기에 있어서 남에 대한 배려보다 자신에 대한 애착이 더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받은 장애인식교육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여학생은 극도의 예민성으로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갖든지 아니면 비슷한 감각을 가진 포래들끼리만 뭉쳐서 다니기 때문에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는 더욱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수교사로서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회가 되면 장애이해교육을 시도하는데 강당에서 많은 학생을 한꺼번에 모이게 하여 강연하는 수준이라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13년 3월 중학교 특수학급교사의 이야기)

위의 사례는 현재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이 처한 힘든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중학교는 교과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학업격차가 크고 독특한 행동을 보이는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발달 단계 상 자아가 강하고 감정이 예민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춘기에 있기 때문에 각박한 교육환경과 맞물려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급에 통합된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과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시키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고등학교로 이어지면서 그 정도가 더욱 심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장애이해교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다시 말하면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중학교의 교육체제를 바꾸는 일은 국가적 차원의 개혁과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외부적인 교육체제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장애학생을 학급의 구성원으로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자신만

아는 청소년기의 학생에게 필요한 발달과제 중 하나가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협력하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획득하는 것이라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인 공감능력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이다.

창작연극활동은 학생의 공감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방안으로서 활용가치가 높다. 창작연극활동은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정서를 다양한 관점에서 표출하는 기회를 준다(정영희, 황정현, 1998). 또한 연극활동은 연기를 통해 감정이입과 공감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하여 도덕적 행위를 촉발하는 작용을 한다(박병춘, 2009; 성민정, 2004). 실제로 공감교육활동은 자신과는 다른 또래의 입장을 정서적으로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윤석미, 2011).

창작연극활동에서 참여자는 자신의 삶을 반영하는 동시에 타인의 삶을 경험하고, 가상세계에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과 불분명한 상황에 대한 자제력이 함양된다(김영미, 2007; 최정혜, 2009; 하영희, 2003; Hughes & Wilson, 2004; Latta & Thompson, 2011). 그리고 창작연극활동에서 참여자는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적절한 수준이나 형태로 표현하거나 관리할 수 있게 된다(신동인, 조연호, 2010; Gottlieb, 1980; King, 2003). 이렇게 볼 때 장애관련 창작연극활동은 참가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공감능력과 친사회적인 행동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장애학생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극 중 연기를 기획하여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면 일반학생의 이타적이고 친사회적인 성향이 증진되고 장애학생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결과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용적 태도가 촉진되고 긍정적인 성향이 내면화되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전술한 가정 하에 본 연구는 장애관련 창작연극활동을 통해 일반학생들이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았다.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이 통합경험의 유형, 연령, 성별 등 일반 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라 상이하다는 연구결과(박재국 외, 2006; 한준호, 2008)를 고려하여 통합교육을 경험한 중학교 여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장애관련 창작연극활동이 장애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실험적 시도이기 때문에 다른 인물에 대한 정서적인 공감이나 감정이입이 잘 일어나고 또래와의 관계에 민감한(박재홍, 김성환, 2011) 여학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중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관련 창작연극활동을 실시하고 창작연극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여 변화된 행동의 의미를 해석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중학교 여학생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창작연극활동에서 참여자가 주고받은 말과 행동 및 표정을 관찰하여 기술하고 그 의미를 찾아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B시 소재 일반 여자중학교에 다니는 통합교육의 경험이 있는 6명의 학생들이다. 대상자들은 연구 의도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듣고 참여에 동의하였다. 연령과 학생의 구체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연령과 장애학생에 대한 생각과 활동참여 동기

이름	연령 (학년)	장애학생에 대한 생각과 활동참여 동기
학생 1	16세 (중 3)	장애학생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가가 도와주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 그냥 지나쳐버리기 일쑤다. 연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연기자에 대한 꿈이 있어 이번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학생 2	16세 (중 3)	장애인이나 장애학생을 보면 다가가기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한다. 장애에 관한 연극이라 고민을 했지만 자신의 소극적인 성격을 고치고자 이번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학생 3	15세 (중 2)	장애인이나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딱히 관심이 없으며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연극 활동이 재미있을 것 같아 이번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학생 4	15세 (중 2)	장애 자체에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이 닥쳐도 장애인을 도와주는 일이 거의 없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연극부 활동이 즐거워서 이번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참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당히 고민 하였다.
학생 5	14세 (중 1)	장애인 친구를 보면 참 해말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었다. 장애인을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딱히 도와줘야 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평소에 연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배우의 꿈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활동에 대한 기대도 크다.
학생 6	16세 (중 3)	장애인 친구들을 보면 안됐고 불쌍하지만 무서워서 먼저 다가가 도와주진 못한다. 연극영화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꿈을 가졌으며 창작연극활동이 어떤 것인가 경험하고자 이번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질적인 연구 방법을 통하여 중학교 여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료는 연구 참여

학생과 연구자의 반성적 저널, 비디오 촬영 자료, 학생들이 완성한 연극 대본 등을 통하여 수집하는 방법론적 삼각측정법(methodology triangulation)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참여 학생과 연구자의 반성적 저널

반성적 저널쓰기는 어떤 사건이나 사태에 대하여 개인이 어떻게 느끼며 고민하고 해결하는 등의 다양한 생각을 기술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 반성적 저널은 창작연극 과정 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는 참가자의 의식 변화에 어떠한 핵심적인 경험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참여 학생은 창작연극활동이 끝난 후 비디오로 녹화된 활동자료를 보고 창작연극 연습과정의 경험을 반성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하였다. 6명의 학생은 창작연극활동이 이루어지는 30회기 동안 본 연구의 중심활동의 시작점인 즉흥극 활동부터 마지막 평가하기 활동까지의 반성적 저널을 5회에 걸쳐 기록하였다.

연구자 또한 참가자들과 같은 형태로 창작연극활동을 실시하면서 진행자로서 뿐만 아니라 학생의 활동에 대한 관찰자로서의 느낌과 생각 등에 대하여 반성적 저널을 작성하였다. 연구자의 반성적 저널도 학생과 마찬가지로 총 5회가 수집되었다.

2) 참여자가 완성한 대본

창작연극활동의 대본은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 스스로 완성하였다. 학생들은 30회기에 걸친 시간 동안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상황극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하여 변화되는 감정을 공유하면서 최종적인 대본을 완성하였다.

3) 비디오 촬영 자료

비디오 촬영은 참가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창작연극활동이 이루어지는 총 30회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촬영한 영상에는 창작연극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언어적 표현과 표정이나 몸짓 등의 비언어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 그 중 활동 중 참여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내용은 모두 전사하였으며 활동의 진행자이면서 관찰자였던 연구자의 관점에서 현장의 분위기를 토대로 참여 학생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여 날짜별로 따로 보관하였다.

3. 장애관련 창작연극활동 내용

창작연극의 세부내용은 1차적으로 연구자가 만든 창작연극활동 내용을 연극관련

전문가와 특수교육 전문가 5인의 3차에 걸친 협의와 보완과정을 거쳐 초안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초안을 가지고 본 연구 참여자의 학교와 같은 학군에 있는 다른 중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토대로 시행 방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창작연극활동의 기간은 2012년 7월 7일부터 2012년 8월 1일까지 약 한 달간 이었고 예술강사제를 도입한 창의적 재량활동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방학동안 실시하였다. 창작연극활동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되었고, 후반부 활동은 2-3회기를 연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창작연극활동을 주도한 연구자는 특수교육 전공자로 연극예술강사로 활동 중이며, 무대경험이 많은 실제 배우이다.

창작연극활동의 1회기 시간은 일반 중학교 과정의 수업과 같은 45분이며 <표 2>와 같이 총 30회기로 구성되었다. 매 회기 창작연극활동 절차는 크게 도입(5분), 전개(30분), 정리(10분)로 구성되었다. 도입 단계에서는 간단한 안부 인사와 이전 회기 활동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전개 단계에서는 각 회기의 목표와 과제에 맞는 활동내용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정리 단계에서는 회기마다 보여주었던 자신의 말이나 행동 등에 대하여 기록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반성적 저널을 작성하는 회기에서는 정리 단계에서 비디오 녹화 자료를 함께 보고 반성적 저널을 작성하는 시간이 추가되었다.

<표 2> 창작연극활동 내용

회기	주제 및 목표	활동 세부 내용
1 - 2	마음열어 구성원 알아가기	①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상대방의 얼굴을 그린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눈은 종이를 보아선 절대로 안 되고 상대방 얼굴만 보아야 한다. 그림을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특징을 간단히 적는다. 5명의 참가자들이 4명의 상대방과 만나게 된다. ② 의자 몇 개를 놓고 털실을 이용하여 얽혀있는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그리며 의자와 이어본다(거미줄과 같은 모습). 모두 만들면 완성된 조각상을 바라보며 각자의 이야기를 꺼낸다.
3 - 4	놀이를 통한 연극 활동의 기초 훈련 습득하기	① 이미지 릴레이: 연구자가 준비한 여러 장의 풍경사진을 학생들은 자신이 이어놓고 싶은 순서대로 사진의 스토리를 만들어 다른 학생들에게 소개한다. ② 발표자 1명을 제외한 5명의 학생들이 원으로 앉아 한 사람씩 나와서 자유롭게 하나의 상황을 동작으로 표현한다. 순서대로 앞서 표현한 학생의 동작을 이어나간다. 여기서 모든 동작은 연결되는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말은 할 수 없으며 오로지 몸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

<표 2>

창작연극활동 내용 (계속)

회기	주제 및 목표	활동 세부 내용
5 - 10	대화를 통한 창작연극의 주제 정하기	장애학생과 함께 지내면서 있었던 다양한 일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 한다(이때 연구자는 학생들의 이야기에 개입하지 않는다).
11 - 16	즉흥극을 통하여 극의 전체 줄거리 잡기	① 앞서 이야기된 나와 장애를 가진 학생의 이야기로 상황극 만들기를 바로 진행한다. ② 5명의 학생은 한 번씩 장애를 가진 학생의 입장에서 즉흥극을 경험한다. ③ 학생의 즉흥극을 통해 중심사건을 정하고 인물설정을 한다.
17 - 20	본격적인 대본 만들기	① 앞서 한 작업을 통하여 짧은 대본으로 만들어 본다. 이야기의 흐름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때는 다시 즉흥극의 상황으로 돌아가 다시 상황을 만들고 이야기를 이어 나간다. ② 대본이 완성되면 학생들은 각자 역할을 맡는다.
20 - 27	장면 연습	완성된 대본대로 학생들은 장면 연습을 시작한다.
28	리허설	장애관련 창작연극 발표를 위한 최종 점검을 한다.
29	창작연극 발표	장애관련 창작연극 “길고 긴 하루”를 공연한다.
30	평가(합평회)	창작연극을 하면서 학생들이 느낀 점과 다양한 생각들을 이야기 해보고 공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한다.

4. 자료 분석

장애관련 창작연극을 통해 나타난 중학교 여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창작연극활동을 진행하면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했다.

1차적으로는 수집된 자료를 연구자가 반복하여 읽으면서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을 다른 색으로 표시한 뒤, 주제어에 라벨링하여 주제어 별로 자료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특수교육 전문가 1인과 특수교육 전공의 박사과정 1인이 같은 자료를 읽으면서 제 1연구자가 주제어로 선정한 것과 그에 따라 유목화된 자료를 검토했다. 이견이 있을 경우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여겨지는 구체적 표현을 유형화하고 그 의미를 해석했다.

이렇게 분석자 삼각측정법(analysist triangulation)을 사용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도를 확보하였고, 결과의 제목을 명명하고 변화된 표현이 잘 드러난 대표적인 자료를 인식변화 단계에 따라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의 저널, 비디오 촬영자료, 학생들이 완성한 대본 등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조정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중학교 여학생이 장애관련 창작연극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기술하고 그 변화된 행동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1. 장애학생에 대한 오해와 편견 드러내기

장애관련 창작연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의사를 밝혔던 연구 참여 학생은 실제 장애학생에 대한 주제로 활동 도입단계에 들어서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을 있는 그대로 나타냈다. 또한 연구 참여 학생들은 흉내내기 이상하고 모자라 보이는 행동이나 역할을 본인이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창작연극활동에 참여 동기가 높고 적극적이었던 초기의 모습과는 다르게 활동에 계속 참여하는 것에 회의적인 표현을 하였다.

장애에 대한 종류? 영역? 그런 게 있는 줄도 오늘에서야 처음 알았다, 그냥 장애인 하나로 다 통하는 줄 알았는데... 아 ... 정신지체는 들어본 것 같고... 생각해보면 분명 들어본 것 같은데 심각하게 생각해보거나 궁금해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지금까지 만나 본 친구들이 정신 쪽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자세히 구분은 못한다,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머리에 문제가 있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연극 대본을 만들기 위해 나는 이야기 속에서 친구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두 지금까지 본 장애인 친구들이 다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갑자기 궁금해졌다, 우리 학교에 있는 장애인 친구들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걸까? 한번도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한 적도 없었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 혹시 내가 장애인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친구 그대로 따라해야 하나?

<학생 1의 1회차 반성적 저널>

창작연극 대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다. 학생 4는 그냥 지나가다 장애학생을 보면 순간 드는 생각은 무조건 이상하다고 했다. 행동이 이상하니까 거부감부터 들고, 그러다 보니 도와주고 싶단 마음을 별로 들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도와줘야한다는 것은 틀린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봉사활동에서 겪은 상황 이야기에서 중증의 장애인들을 겪으면서 많이 무서웠다는 이야기를 한다. 스토킨처럼 따라다니기도 하고 학생 2의 친구 중에 한명은 봉사활동에 가서 장애인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더니 하루 종일 전화를 해서 결국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상한 행동을 해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중략)

<7월 23일 비디오 촬영 자료>

봉사활동을 가서 오히려 장애인들이 두렵고 무서웠다는 학생의 경험담은 봉사활동을 하기에 앞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응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신뢰할만한 성인과 동행하며 점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좋지 못한 경험으로 인하여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고착화되면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지 못하거나 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올바른 장애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거나 자신과는 다른 장애학생에 대한 기피와 편견은 아래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지하철 장면과 여러 상황에 맞는 대본 만들기를 했다. 지하철 승객의 입장에서 연기하고 글을 썼는데... 장애학생이 내 물건을 그냥 가지고 가니까 짜증이 났다. 더 싫었던 건 그냥 기분상 내 물건이 더러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장애인인 자식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짜증이 났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지를 말던가...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다.... 순간,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기도 했다. 혹시 앞에서 본 친구들이나 같이 한 친구들이 엄청 나쁜 년으로 생각하진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래도 기분은 나빴다. (이하 생략)

<학생 4의 2회차 반성적 저널>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이 가족의 관리소홀로 여기며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장면에서 장애를 가진 또래가 자신의 물건을 만지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고 더럽다고 느낄 정도로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인식이 장애이해와 수용을 돕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적, 사회적 지원을 받지 않으면 장애학생을 직접 겪고 접촉하면서 외형적인 행동문제나 행동적 특성으로 인해 장애학생에 대한 거부감을 형성하고 기피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2. 장애학생 입장되어보기

창작연극활동을 하기 이전과 활동 초반에 장애학생에 대한 선입견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던 연구 참여자는 연극 활동에 집중하면서 장애학생을 더욱 잘 표현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대본을 집필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흥극을 할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다, 장애학생 연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학교 교실의 컴퓨터를 사용해 장애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많은 질문거리를 친구들에게 넘겨준다. 장애학생의 돌발 상황과 문제행동은 어떤 것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연습에 들어가 장애학생 역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인물의 기초 성격을 잡는다. 인지가 정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과 함께 동작 하나하나 인터넷으로 본 사진과 영상 등을 따라 표현한다.

<7월 26일 비디오 촬영자료>

연구 참여 학생들의 창작연극활동에 대한 집중력은 정보수집에만 그치지 않았다. 장애학생의 역할을 상상하고 직접 재연해보면서 역할을 취해보고 그 역할의 감정을 조망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즉흥극 시간에 장애인 역할을 했을 때 살기 싫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들이 뉘데... 장애인이 된 기본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지 진짜 힘내서 때려주고 싶었다. 사람인데도 사람 취급 못 받고 동물 아니 쓰레기 취급하는 느낌이 들었고 부모님 욕할 때는 정말 놀리는 친구들을 죽이고 싶었다. 즉흥극을 하기 전에는 사실 장애인 학생은 따로 특수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수업시간에 시끄럽고... 귀찮고... 그냥 말도 안 통하니까... 놀리고 괴롭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반성도 됐다. 그리고 장애인 친구를 잘 도와주는 친구역할을 했을 때 내가 진심으로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혼란스러웠다. 장애인 친구를 동정해서 인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친구라고 생각해서 인지...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싶어서인지... 진짜 학교에서는 장애인 친구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적은 없다. 장애인 친구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오늘 즉흥극을 하면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기분을 겪었다.

<학생 6의 2회차 반성적 저널>

자신과 장애학생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기분 나쁘고 오히려 주위 시선이 거북하다거나 자신을 놀리는 친구들을 해하고 싶었다는 억울한 감정까지 표현해내는 모습을 보였다.

상황2(집)

엄마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고 큰언니는 공부, 작은언니는 미술숙제를 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막내는 미술숙제를 하는 둘째 언니를 또 방해한다,

둘째 언니: 야 야야야 (동생 때리며) 니 죽을래? 아 진짜..

엄마: 또 왜 그래??

둘째 언니: 아 엄마 또 미술 숙제 다 망쳐놨다... 내가 미치겠다,

엄마: 또 또!! 동생 아픈 거 알면서 또 짜증낸다!! 혼날라고!!

둘째 언니: 잘못은 ○ ○ 가 했는데 왜 내가 혼나는데!!! 그냥 복지관 보내라

엄마: 복지관은 무슨 복지관 한번만 더 그딴 소리해!!

(첫째가 둘째 데리고 나간다)

첫째 언니: 야 (한숨 쉬며) 왜 그라노? 니가 그러면 엄마 더 힘들다,

둘째 언니: 맨날 맨날 짜증나 죽겠다, 아 진짜...

첫째 언니: 안 그래도 밖에 나가면 엄마 막내 뒤통기거리 한다고 고생하시잖아...
우리라도 좀 맘 편하게 잘 하자...

둘째 언니: 알겠다...

(다시 거실로 나가서)

첫째 언니: 엄마 얘기 잘 했어요 걱정마요..

엄마: 그래... 에휴... 고맙다... 그래도 만이네 만이네...

(장애를 가진 막내는 계속 둘째 언니를 괴롭히고 둘째 언니는 완전 포기 한 듯 한숨과
짜증을 내며 퇴장)

<학생들이 완성한 창작연극 대본>

대본 만들기 작업을 하면서 나는 장애인 학생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다, 즉흥극 시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역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말이 그렇게 나왔다, 장애인 역할을 해보니 장애인도 우리와 같이 느끼는 감정은 다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비록 연기였지만 나를 괴롭히는 학생들 때문에 정말 기분 나쁘고 속상했다, 마치 진짜 상황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진심으로 울컥하기도 하고 울고 싶기도 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감정을 돌아다니거나 소리 지르는 것으로 표현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 말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정확하게 할 수 없고 다른 친구들처럼 제대로 뛰고 싶지만 몸이 불편해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말과 행동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니 진심으로 느껴졌다, 복지관이나 뭐 장애인들이 있는 곳으로는 봉사활동

자주 안가는 편인데 한 번 가서 제대로 도와주고 싶어졌다.

<학생 5의 3회차 반성적 저널>

연구 참여 학생은 장애학생의 가족 역할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태도에 상처 받고 장애학생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만큼 가족이 장애학생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에 대한 고충을 공감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 5의 반성적 저널에서처럼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놀라운 변화였다.

오늘 리허설을 하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연극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대본을 외우고 어느 정도 실제처럼 연기를 했는데... 하는 내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장애인 형제나 엄마가 되었더라면 정말 쪽팔리고 창피할 것 같다. 이게 진짜 현실이면 귀찮고 다 짜증 날 것 같았다. 그래도 운명이려니...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너무 싫었다. (중략) 세상 사람들이 참 무섭하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상황연기를 할 때도 그랬고 오늘 리허설을 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언니, 동생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평소에 우리 모습인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다.

<학생 3의 4회차 반성적 저널>

장애학생 역할을 맡아 연극활동을 하면서 역할에 집중하고 장애학생의 감정이나 처한 상황에 공분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더 나아가 장애인 역할이 이제 더 이상 회피하고 싶은 더러운 역할이 아니라, 익숙하고 친숙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역할 조망을 통해 충분히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장애학생의 입장에 대해 각성함으로써 자신과 다르지 않은 존재로 수용하는 장면으로 이해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참여 학생은 장애학생이나 그 가족으로 처해보는 장면이나 상황을 상상하며 그들의 입장을 공감하게 되었다. 또한 정서적인 공유와 함께 도덕적인 각성과 실천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변화까지 보여주었다.

3. 장애학생에 대한 공감행동 다짐하기

창작연극활동을 하기에 앞서 주제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고 기피의 대상이었던 장애학생 역할이었지만, 창작연극활동에 몰두하면서 장애학생의 입장에서 상황이나 감정, 인식 등을 공감하게 되고 점차 장애학생의 어려움과 고립 등을 이해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장애학생의 현실에 대해 공감하고 이들을 도우려는 의지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선생님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다. 그런데.. 연기 잘 하는 친구들은 정말 잘 하는 것 같다, 나는 솔직히 잘 못한 것 같다. 연극이라서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또 언제 장애인에 대해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장애학생 역할을 할 땐 장애인이라고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게 너무 싫었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고 쉽게 말하지 말아야지... (중략)

<학생 4의 5회차 반성적 저널>

연극을 마치고 최종적인 내 생각은 만약에 내가 TV에서 장애인에 대한 광고들... '장애인을 배려하자', '장애인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와 같은 광고들을 보았다면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지랄하고 있네... 저래봤자 어차피 장애인을 도와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텐데..." 그런데 이번 연극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상... 장애인인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 그런 광고를 방송한다면 아주 조금이나마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비록 장애인 연기를 해보는 것에 불과 했지만 나에게 병신, 포라이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고 뭔가 내 마음 속에서 어떤 게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엔 장애관련 연극을 한다고 해서 조금은 싫었다. 그냥 재미있는 거...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즉흥극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그대로 대본으로 만들고 공연까지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 5의 5회차 반성적 저널>

이상의 학생들의 표현은 연극이라는 매개를 활용하여 직접 대본을 집필하고 타인의 경험이나 상황을 상상하면서 장애학생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하고 우리 사회의 비수용적인 분위기에 대해 자각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장애와 관련된 지식들을 주지시키며 장애인을 수용하여 사회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더라도, 장애학생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통합교육이 장애학생에게 득이 될 것이라 여기는 등 사고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찾아볼 수 있었다.

공연까지 활동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학생들과 연극 공연을 관람하러 갔다.(중략) 우연히 극장으로 가던 지하철 안에서 지적장애로 보이는 장애아동을 만나게 되었다. 학생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으며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 끝자리 좌석에 앉아 있던 친구에게 서있던 친구들이 자리를 양보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장애아동 어머니에게 자리를 권유해 주었다. 그러자 한 학생이 말했다, "예전 같으면 옆에 있었는데도 몰랐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공연해서 그런지 눈에 장애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만나고... 신기해요 선생님!" 물론 나와 함께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신경 쓰고 행동한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냥 친구들이 너무

대견스럽고 이뻐다.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장애학생들을 이제는 먼저 보고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8월 1일 연구자 반성적 저널>

학생 4는 장애학생과 한 반에서 수업하는 게 좋지만은 않다 라고 말했다. 연극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많이 힘들 것 같고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겠다고 생각도 하고 반성도 많이 했지만 좋은 것 보다는 아직 삶은 것도 많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 친구가 아주 인상 깊은 것은 여기부터다. 본인은 아직 한 반에서 수업을 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불편하지만 장애인 친구만을 위해 생각한다면 일반학교에서 함께 우리들과 생활하는 게 맞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장애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으니 학교에 같이 생활하면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특수학교에서 비슷한 상황의 학생들끼리만 있으면 전혀 장애인 학생들에게 도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다.

<8월 1일 비디오 촬영 자료>

연극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이 맡은 장애학생을 잘 표현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정보를 탐색하였고,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면서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장면이다. 그 전에는 같은 학급에 있으면서도 삶이나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로서 장애학생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애학생이 겪을 법한 상황을 연극활동 속에서 경험하면서 장애를 가진 또래나 장애인 가족에 대해 정서적인 공감과 수용적 태도를 다짐하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기까지 하는 변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 관련 창작연극활동을 통해 중학교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애학생과 관련된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창작연극활동이 다양한 또래들을 수용하고 인정하며 공감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중학교 여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과 창작연극활동의 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여학생은 장애 학생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표출하는 초기 단계를 시작으로 장애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단계를 거쳐 장애학생에 대해 공감하고 이들을 도우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단계로까지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창작

연극활동에 들어가기 전, 본 연구에 참여하였던 중학교 여학생들은 장애라는 주제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장애학생의 역할을 기피하였다. 하지만 창작연극활동의 회기가 진행될수록 서서히 장애학생의 어려움과 외로움 등에 대하여 공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창작연극활동이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 학생의 편견이나 기피행동은 통합교육이 법으로 보장되기 훨씬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그만큼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법률적인 보장이나 행정체계의 변화만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사회심리적 문제이다. 학교현장에서도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을 통합하여 교육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물리적 통합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연구에 참여하였던 여학생도 초등학교 때부터 장애학생과 한 학급에서 통합되어 생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연극 활동 초반에 보여준 장애학생에 대한 무관심이나 거부감은 그 동안 경험한 통합교육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단순한 통합은 장애학생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초래하거나 편견을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는 통합교육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고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이 일반또래 집단에 원만하게 적응하지 못하여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이 있다(박지원, 2010)는 사실과 관련된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정착화하거나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상호 수용하고 동일 학년의 또래로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보여준다. 보다 장기적으로 교육과정의 수정이나 교수설계의 단계에서부터 장애를 가진 학생이 참여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협동학습을 하며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고 또 다른 또래로 인식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박승희, 2003; 손정민, 2007).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토요일 특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식 개선을 포함한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도 예술강사제를 활용하는 교육시간을 이용하였으며 학교관계자와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둘째, 장애와 관련된 창작연극활동을 진행하면서 일반 중학교 여학생은 장애학생과 장애가족의 입장을 동일시하고, 사회적 편견의 부당함을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장애학생이 자신과 다름없는 인격체라는 것을 지식이 아니라 공감을 통해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창작 연극에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바꿔서 해보는 활동이 인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에(김영미, 2007)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심리적인 거리가 좁혀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창작연극활동이 학교현장에서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거나 교육과정이나 수업에 접목시켜(성민정, 2011; 한명구, 2008)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활동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극활동은 자기표현력과 자아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이은선, 2006;

최정혜, 2009),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정서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공감능력은 비단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를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왕따, 청소년 자살 등의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역할극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용되는 경우(허미경, 2008)도 이러한 공감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용한 사례다.

결론적으로, 장애관련 창작연극활동은 장애학생에 대한 중학교 여학생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중재방안으로 통합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인식변화를 살펴보았다. 참여자의 인식변화가 실제로 장애학생에 대한 이타적 행동이나 촉진적 도움행동으로 추후에도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창작연극활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진행자의 전문성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적용하기 용이한 매뉴얼과 그에 따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밝힐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여학생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소년기의 남학생을 포함하여 연구 참여자의 배경변인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을 다양하게 구성한다면 참신하고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2 간추린 교육통계, 33-34.
- 김영미 (2007). 연극 창작 활동이 여고생의 자아개념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병춘 (2009). 공감발달을 위한 도덕교육 방법.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지**, 13(1), 127-144.
- 박승희 (2003). 장애학생의 교육과정적 통합을 위한 일반학교의 학교수준 교육과정 계획 모형. **특수교육학연구**, 37(1), 199-235.
- 박재국, 강영심, 안성우, 김자경, 황순영 (2006). 초·중등학생이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비교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8(2), 1-25.
- 박재홍, 김성환 (2011). 청소년기 뇌 발달과 인지, 행동특성. **생물치료정신의학**, 17(1), 11-20.
- 박지원 (2010). 장애관련 창작동화를 활용한 토의활동이 일반아동의 장애 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성민정 (2004). 연극놀이를 통한 아동의 정서함양에 관한 연구. **연극학보**, 32, 303-370.
- 성민정 (2011). 교육연극의 이론적 기초와 실천적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30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4권 1호)

- 손정민 (2007).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연극 프로그램이 정인지체학생의 자기 표현력과 사회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신동인, 조연호 (2010). 정신장애인을 위한 연극치료 집단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 **연극교육연구**, 17, 147-174.
- 윤석미 (2011). 초등 도덕과에서 공감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 이은선 (2006). 연극치료(Dramatherapy)를 통한 청소년의 자아개념(self concept) 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정영희, 황정현 (1998). 연극놀이의 교육적 효과 및 활용. **초등국어교육**, 8, 115-150.
- 최정혜 (2009). 교육연극 활용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창의성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 하영희 (2003). 연극놀이 활동이 주의력결함 과잉행동 장애 아동의 사회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한명구 (2008). 한국 중등학교 연극교육 및 연극교과서 개선방안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한준호 (2008). 통합교육에 따른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허미경 (2008). 역할극을 활용한 중학생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연구. **한국싸이코드라마학회지**, 11(2), 37-52.
- Gottlieb, J. (1980). Improving attitudes toward retarded children by using group discussion. *Exceptional Children*, 47(2), 106-111.
- Hughes, J., & Wilson, K. (2004). Playing a part: The impact of youth theatre on young people's personal and social development. *UK Research in Drama Education*, 9(1), 57-72.
- King, N. (2003). Playing their part: Language and learning in the Classroom, *NH: Heineman*, 159-160.
- Latta, M. M., & Thompson, C. M. (2011). Adolescents' affective engagement with theatre: Surveying middle school students' attitudes, values, and belief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 the Arts*, 12, 1-18.

Changing the perception of junior school girls toward student with disabilities through creative drama activity

Ok, Hye sook

Busan Gyungsang University

Kang, Young sim

Pusan National University

Jung, Hye yun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change the perception of junior school girls toward student with disabilities through creative drama activity related disabilities.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were six students who attend a typical girls' middle school in B city. For this, this study was implemented using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qualitative data for analysing perception change was collected through video footage of 30 sessions, reflective journal written by first author and musical actor who was running creative drama activity and participant students, creative drama script completed by participant students. The result was as follows; During the process of creative drama activity, the perception of junior school girls toward student with disabilities had been changed from negatively to positively. Especially taking a view of role on student with disability and his/her families made participant students understand difficulties students with disabilities experience in society including school. And they expressed an empathy with loneliness students with disabilities feel. It is suggested that creative drama activity related disabilities is a good intervention program for improving the attitude of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toward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inclusive setting.

Key Words : creative drama activity, perception toward students with disabilities

논문 접수: 2013. 02. 06 심사 시작: 2013. 02. 14 게재 확정: 2013. 03. 25